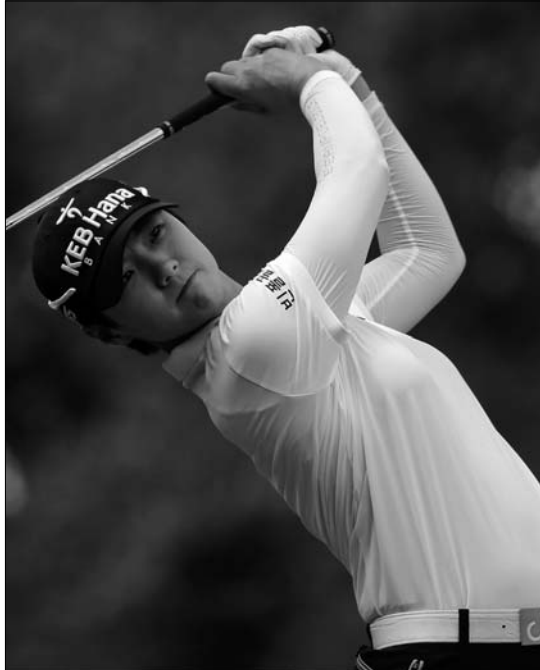


태극낭자들, '브리티시 오픈' 우승 정조준

LPGA투어 메이저 승격 후 5승 최다 우승국... 세계랭킹 1위 유소연·박성현 등 20명 출사표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에 골프의 성지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장으로, 세계 3개 골프코스 중 하나다. 북해의 구릉지에 펼쳐진 이곳은 예측할 수 없는 강풍과 번덕스러운 날씨, 깊은 러프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는 험악한 벙커까지 링크스 코스의 전경이다. 올드 코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킹스번스 링크스 코스가 있다. 역사와 명성에서 있어서는 올드 코스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코스 난이도는 링크스 코스의 난재들을 모두 갖췄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번째 메이저 대회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총상금 325만 달러)이 킹스번스 링크스 코스(파72, 6897야드)에서 열린다. 1976년 창설돼 4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리티시 오픈. 처음에는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로 열리다가 1994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편입돼 2001년 메이저로 승격됐다. 브리티시 오픈은 메이저 승격과 함께 한국 선수들에게 있어 익숙한 대회나 마찬가지다. 메이저 승격 후 16번의 대회 중 9개국이 우승을 나눠가졌는데 한국이 가장 많은 5번의 정상에 차지했다. 미국(3승)과 대만(2승)이 뒤를 이었고, 호주, 태국, 스웨덴, 잉글랜드, 멕시코, 스코틀랜드 등이 한 차례씩 타이틀을 가져갔다. 메이저 대회로 처음 열린 2001년 박세리가 우승했다. 이후 장정(2005년), 신지애(2008, 2012년)에 이어 '골프여제' 박인비(29·KB금융그룹)가 2015년 이 대회 우승을 통해 '커리어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올해도 한국 선수들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번째 메이저대회인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에 출전하는 유소연(왼쪽)과 박성현.

세계랭킹 1위 유소연(27·메디힐)과 4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은 메이저 대회 2승에 도전한다. 상금 순위에서 나란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둘은 평균 타수에서 있어서는 박성현이 2위, 유소연이 3위를 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 있다. 유소연은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반면 박성현은 강력한 드라이버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승부를 본다. 둘 중 어떤 스타일이 링크스 코

스에서 적합할지는 두고 볼 문제다. 지난해 '스코티시 여자오픈'에서 6타차 역전 드라마를 쓴 이미향(24·KB금융그룹)도 우승 후보다. 같은 링크스 코스에서 우승한 만큼 누구보다 자신감이 붙어 있다. 큰 대회에 강한 박인비는 물론이고 2승을 거두고 있는 김인경(29·한화),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양희영(28·PNS) 등도 있다. 전인지(23)는 준우승 징크스를 깨고 통

산 3번째 우승 역시 메이저 타이틀로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국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4주 연속 우승을 달성한다. 22개 대회 중 12승을 거두면서 시즌 최다승(15승)에도 성공 다가간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3위 에리아 쥘리안(미국)과 세계랭킹 2위까지 상승한 렉시 톰슨(미국)은 한국 선수들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로 꼽힌다. /김민근기자

그룹 '여자친구' 신곡 6개 차트 1위

그룹 '여자친구'(소원·예린·은하·유주·신비·엄지)의 새 노래 '귀를 기울이면'(LOVE WHISPER)이 6개 음원차트 정상에 오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귀를 기울이면'은 2일 오전 10시 전체 8개 음원 차트 중 6개인 멜론·네이버·소라바다·올레·빅스·지니뮤직 실시간 차트 정상에 올라있다. 엠넷·몽치뮤직에서는 각각 3위, 10위를 유지 중이다. 이번 곡은 '여자친구'의 다섯 번째 미니앨범 '패럴렐'(PARALLEL)의 타이틀 곡이다. 특유의 청순하면서도 파워풀한 목소리가 돋보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는 가사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앨범에는 '두 손을 모아', '이분의 일', '라이프 이즈 어 파티'(LIFE IS A PARTY) '빨간 우산' '그루잡'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수지, JYP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 체결

톱스타인 가수 겸 배우 수지(28)가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JYP는 2일 "수지와 향후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지와 JYP의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업계의 일부에서는 수지가 JYP를 떠나 다른 기획사에 새 동지를 트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10년 걸그룹 '미쓰에이'(miss A)로 데뷔한 수지는 그룹 및 솔로가수 활동으로 인기를 누렸다. 특히 2011년 KBS 2TV '드림하이'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뒤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이라는 닉네임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수지는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SBS TV 새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를 통해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뉴시스

MLB 추신수, 시애틀전 3안타 맹타 활약

1번 지명타자 선발출전 4타수 3안타... 3경기 만에 멀티히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5)가 3안타 경기를 펼쳤다. 추신수는 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메이저 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3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추신수는 2경기 연속 안타를 날렸고 3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올해 3안타 경기는 5번째다. 시즌 타율은 0.255로 높아졌다.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연달아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1회말 시애틀 선발 에라스모 라미레즈의 초구를 공략해 유격수 방면 내야안타를 날렸다. 추신수는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라미레즈의 4구째 85마일(137km)짜리 체인 지업을 잡아 당겨 우전안타를 때려냈다.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6회 몸에 맞는 볼을 얻어냈다. 8회 중전안타를 친 추신수는 대주자 팀

라이노 드질즈로 교체됐다. 추신수는 네 차례나 출루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텍사스는 7-8로 석패했다. 4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시즌 50승36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한편,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결장했다. /김민근기자 추신수는 2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7메이저 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3안타로 맹타를 휘둘렀다.



류현진 7일 메츠전 출전... 시즌 4승 사냥

류현진(30·LA 다저스)이 오는 7일(한국시간) 뉴욕 메츠를 상대로 시즌 4승 사냥에 나선다. 당초 로테이션상 류현진의 등판일은 6일이었다. 그러나 다저스가 일선인 투수 다르빗슈 유(31)를 영입한 후 5일 메츠전에서 다저스 데뷔전을 치를 것이라고 밝히면서 로테이션이 하루씩 밀렸다. 리치 힐이 6일, 류현진이 7일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등판했다. 시즌 4승 달성에 실패했지만, 7이닝 5피안타 7탈삼진 1볼넷 무실점 호투를 선보였다. 올 시즌 류현진은 실력으로 다저스 선발전에 남았지만, 다르빗슈가 로테이션에 들어오면서 다시 선발 경쟁을 펼쳐야 할 처지가 됐다. 매 경기 호투가 절실한 상황이다. 류현진은 메츠를 상대로 통산 4경기에 등판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16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김민근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